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재정상태분석

The Financial Status of Family Business : Comparison of Home-Based Family Business with Onsite Family Business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 수 김 순 미
계명대학교 가족복지전공
부교수 홍 성 희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oon-Mi Kim
Dept. of Family Welfare, Kei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ung-Hee Hong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결과 및 해석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financial status of home-based family business with that of onsite family business, and to analyze the factors effected on financial status of both business groups. The sample consisted of 295 home-based family business and 418 onsite family business among self-employed household of 1998 Korea Household Panel Data, and analyzed into Frequencies, Percentile, t-test, x^2-test and Regress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financial status of househol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ome-based family business and onsite family business. Second, in case of financial status of business, total sales amount and net profit of home-based family business were lower than those of onsite family business, however net profit to total sales ratio of home-based family business was higher than those of onsite family business. Thir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otal expenditure to total income ratio of home-based family business were business owner's present economic perception, future economic expectancy and residence, while business owner's age, the number of children and of earner, and residence were significant

variables contributing to same ratio of onsite family busines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otal asset to total debt ratio of home-based family business was only business owner's future economic expectancy, however factors affected on the counterpart were business owner's future economic expectancy and job type of family business. Fourth, the variables of sex, age, educational level of family business owner, job type and family type of family business were associated with net profit to total sales ratio of home-based family business, and sex, educational level of family business owner, job type of family busines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were related to same ratio of the counterpart. In addition, educational level of family business owner, job type and residence were related with total sales to the number of employees ratio of home-based family business, and educational level of family business owner and job type of family business were related to same ratio of onsite family business.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가족기업 형태는 가족기능을 지향하는 '생업형 가족기업' 과 기업기능을 추구하는 '기업형 가족기업'의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업형 가족기업의 경우 가계와 기업경영이 미분리 상태이고 소규모의 주거지 중심의 재택근로의 형태가 많다(김지희, 1998).

재택근로는 일하는 장소가 사무실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탄력적 공간(flexiplace)의 노동형태라 할 수 있으며, 공간의 융통성으로 인해 가족기업가계의 경제적 측면을 비롯하여 가족관계 측면, 자원관리 측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재택근로가 197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불안정한 경제상황 하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재택근무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시장노동의 요구로 인해 가계가 시장노동과 가족 책임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재택근무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Pleck, 1977).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높고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대한 욕구가 확산되고 여성의 취업의사가 높아지면서 재택근무는 소득창출을 통한 가계재정에의 기여 및 효율적 노동분담, 여성의 고용촉진 및 새로운 소득창출의 통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제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즉,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재택근로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시 자녀양육 등의 부담으로 인한 대안적 해결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재택 가족기업은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중도이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가정과 직장을 병존시킬 수 있는 근로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재택 가족기업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혼여성들의 근로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Heck, 1988, 1992).

또 재택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간과 공간을 융통성있게 선택함으로써 자녀양육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절약할 수 있고 가계지출이 감소함으로써 잠재적인 소득효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잠재소득이 근로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일부의 연구(Ahrentzen, 1990; Christensen, 1987)에서는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일과 자녀양육활동을 결합시키기가 쉽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과중한 이중노동부담, 노동생산성의 저하, 재택근로자의 생활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미국 재택근로자의 소득이 비재택근로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보고되었으며(Edward et al., 1996), 우리나라의 생계형 가족기업의 경우 소득이 낮을 뿐 만 아니라 가계비와 기업경영비의 미분리에 따르는 재무관리의

곤란, 자금조달능력의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김지희, 1998)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재택근로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및 잠재소득을 비롯한 가계의 재정상태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가족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의 장단, 사업공간의 유무와 관련하여 재택여부가 기업의 재정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택근무가 가정과 직장을 병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활동 참가와 노동시장의 탄력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의의를 갖는가를 탐색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재택여부에 따른 가족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즉,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특성과 가계의 가계재정 및 기업재정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재택 가족기업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취업대안으로서 의의를 갖는가를 판단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기업의 재택여부와 경제적 특성

가족기업의 재택여부에 따른 경제적 특성은 기업측면과 개인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으며, 개별 가족기업의 경제적 특성은 사업소득과 잠재소득의 두 가지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사무실이나 공장 등 집중된 공간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나, 최근에는 산업환경이 변화되고 통신기술이 발달하여 원격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 측에서도 사업장의 위치를 사무실로만 제한시키지 않고 통신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근로자가 거주하는 공간과 연결하는 재택근무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기업측면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생산성관련, 인재확보관련, 비용절감관련의 의의를 들 수 있다. 생산성관련의 이유는 장시간 통근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근무자가 원하는 공간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인재확보에 유리하다. 또 비용관련의 측면으로는 사무실 공간의 축소나 재배치를 함으로써 임금 다음으로 가장 큰 고정비용인 부동산 관련 비용을 삭감할 수 있다(박명희 등, 1997).

한편 개별 가족기업의 측면에서 가족기업은 직접적인 소득 창출을 통해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는 가족기업을 지속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Winter, 1999).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기업은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영자의 개인소득, 가족기업소득, 근로자소득이 각각 인식되더라도 실제 상으로는 반드시 구분되지 않는 특성을 보여 준다.

Rowe 등(1993)의 연구에서는 재택가족기업 근로자가 가족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봉급생활자의 임금에 비해 더 낮으며, Coates(198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비재택근무자의 소득과 비교할 때 재택근무자의 소득이 비교적 낮은데(박명희 등, 1997에서 재인용), 이는 전문직이나 사무직 등의 시간당 임금은 더 높지만 재택근무자를 기업에서 자유계약직으로 고용함으로써 연금이나 부가급부 등을 지급하지 않는 점, 일감이 일정치 않아서 소득이 덜 안정적인 굴곡을 가지는 특성, 대부분 파트타이머이며 가족활동을 함께 한다는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Allen & Wolkowitz(1987)의 연구에 의하면 재택근무자의 가계소득에 대한 기여도는 총 가계소득의 2-76%의 범위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기여도가 높았다.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가족소유 소기업가계의 월평균소득을 비교한 곽인숙·이경희(2000)의 연구에서는 비재택 가계와 재택 가계의 월평균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재택 가계의 월평균소득이 비재택가계에 비해 낮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재택가족기업은 소득수준이 낮고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dwards 등(1996)이 미국의 1990년도 Census of Population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재택근로자의

연소득과 시간당 임금은 출퇴근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남녀 재택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녀 출퇴근근로자의 85%와 75%의 수준이었다. 이는 재택근로자의 특성, 즉 취업상태가 자영업인가 임금근로자인가, 노동시간이 시간제인가 전일제인가, 그리고 거주지역과 관련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택근로자와 출퇴근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취업상태, 거주지역, 주당근로시간별로 비교한 결과,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남성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서 재택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출퇴근근로자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가족기업의 재정상태를 순수입 대 총매출의 비율로 분석한 김순미 등(2000)의 연구 결과, 출퇴근 가족기업의 순수입 대 총매출액의 비율이 재택가족기업에 비해 더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출퇴근 가족기업이 재택 가족기업보다 규모가 크고 종업원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출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가족기업 중에서도 재택근무자가 얻는 소득에는 가시적인 소득 이외에 직접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소득이 있다. 잠재소득은 양육비 이외에도 의복비, 교통비, 외식비 등 전통적인 작업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절약하는데서 얻는 소득이다. Pratt(1984)의 실증연구에서는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외식비, 교통비, 피복비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며 특히 자영재택근무자의 경우 가정에 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사무실 임대비용과 세금비용이 절약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거주주택이 사업장이 될 경우 가정에서 직접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있고, 대리 자녀양육비, 교통비, 의복비 등의 지출 감소를 통해 간접적 잠재소득을 얻음으로써 가족기업가계의 재정상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초기의 창업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는 가족들에게는 가족기업의 창업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재택근무로 인한 잠재소득과 관련된 연구로서, Rowe & Bentley(1992)의 연구에서 재택근무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과 소득을 결합시키는 전략으로 사용되었으며, 자녀양육비용이 가계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재택근무로 인해 낮아진 소득은 자녀양육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행연구의 고찰

일반적으로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가시적 소득 및 잠재소득은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득을 포함한 가족기업의 재정상태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재택여부에 따른 가족기업의 경제적 특성이나 재정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가족기업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Edwards 등(1996)의 연구에서 재택근로자와 출퇴근근로자는 성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는데, 출퇴근근로자의 46%가 여성인 것에 비해 재택근로자의 59%가 여성이었다. 더구나 기혼 재택근로여성 중 29.9%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으며, 이는 기혼 출퇴근 근로여성의 15.1%에 비해 높은 것이었다. 성별에 따라 직종의 분포 및 임금 수준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Blau & Ferber, 1986)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행연구 결과 재택근로자의 경우도 성별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raut(1989)는 남성 재택근로자는 여성 재택근로자에 비해 전문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며, 소득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Rowe & Bentley (1992) 또한 여성 재택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가족유형과 관계없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발견하였다.

Bregger(1996)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우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영업의 비율이 증가하며 젊을수록 경험이나 재정 능력의 부족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높은 교육수준은 전문성 및 기술과 관련하여 영리성을 증진시키며, 영리성은 총소득 중 사업소득의 기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Heck 등(1993)의 연구 결과, 가족기업주의 교육수준이 높

을 때 총소득에서 가족기업의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비율보다 높았으며, Rowe 등(1993)의 연구에서도 재택 가족기업의 사업소득은 사업주의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어 교육수준과 함께 상향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의 자녀는 재택근무의 시간과 소득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은 특정 가족상황 하에서 자신의 유급노동과 가족의 요구를 통합시키기 위해 근무시간이 짧고 요구도가 낮은 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Rowe & Bentley, 1992), Walker 등(1993)의 연구에서는 6세 미만의 자녀유무가 여성의 순사업소득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남성의 순사업소득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가족기업을 남성이 운영하는 경우 어린 자녀의 존재는 남성의 집중적인 노동과 강한 영리적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Heck 등(1993)의 연구에서는 6세 미만 자녀나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정적 영향을 미쳐 사업소득 대 총가계소득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을 확률이 컸다. 이러한 자녀관련변수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자녀수와 관련하여 가계의 재정적 요구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는 소득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가계는 재택 가족기업을 더 활성화시켜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할 수 있다.

가족기업은 한 공간 내에 가족영역과 기업영역이 공존하는 고도로 복합적인 체제이므로, 가족형태 및 가족수, 자녀수 등의 가족 및 가구특성에 따라 가족기업의 사업소득이 다를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Rowe 등(1993)의 연구에서는 가족형태 및 가족수가 순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Rowe 등(1993)의 연구에서 대도시에 위치한 가족기업의 순사업소득이 더 많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가족기업을 9개 직종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사업소득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마케팅 및 세일즈직의 사업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직에 비해 제조업의 순사업소득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기업의 직종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가족기업주의 소득에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의 추가 근무로 인한 소득 증가는 여성의 2배 이상이었다(Walker, 1993). Heck 등(1993)의 연구결과 연간근무시간이 길수록 가족기업의 사업소득이 총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컸는데, 전통적인 형태의 비재택 취업과 마찬가지로 더 큰 노력을 사업에 기울임으로써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낳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업원수는 가족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종업원을 필요로 하는 규모의 가족기업은 더 많은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총소득 중 가족기업소득의 비율이 증가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가족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등에 기초한 재무율을 파악한다. 이 때 가계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재무율로는 김순미·홍성희(2000)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재정적 안정도를 파악하는 총지출 대 총소득율과 재정적 자립도를 파악할 수 있는 총자산 대 총부채율로 선정하였다.

둘째,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기업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출액, 순수입, 종업원수에 기초하여 기업재정상태를 파악한다. 기업재정상태 역시 김순미·홍성희(2000)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매출력과 기업성과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순수입 대 총매출액비율과 노동생산성 및 기업장래성을 측정하는 총매출액 대 종업원비율로 선정하였다.

셋째,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가족기

업자의 특성, 가족 및 가구 특성 및 재정적 요인이 총지출 대 총소득율과 총자산 대 총부채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넷째,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가족기업자의 특성, 가족 및 가구 특성, 재정적 요인 및 기업관련 요인이 순수입 대 총매출액비율과 총매출액 대 종업원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행연구에 기초하며,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 의 및 측 정 방 법
종속변수	
총지출 대 총소득율	가계총지출 / 가계총소득
총자산 대 총부채율	가계총자산 / 가계총부채
순수입 대 총매출액율	기업순수입 / 기업총매출액
총매출 대 종업원비율	기업총매출액 / 기업의 총종업원수
연간총소득(만원)	가구의 근로소득 + 자산소득 + 이전소득 + 기타소득
연간총지출(만원)	가구의 총지출
총자산(만원)	가구의 예금 + 주식 + 채권 + 보험 + 계 + 부동산
총부채(만원)	가구의 사채 + 금융기관부채 + 빌린돈 + 비금융기관부채 + 월부 및 외상
순자산(만원)	가구의 총자산 - 총부채
월평균총매출액(만원)	자영업의 월평균 매출액
월평균순수입(만원)	자영업의 월평균 순수입
독립변수	
가족기업주의 개인적 특성	
성별	1 = 남 0 = 여
연령	1 = 35세 미만 2 = 35-44세 3 = 45-54세 4 = 55세이상
교육수준	1 = 중학교 이하 2 = 고등학교 졸업 3 = 대학이상 교육년수
직업	1 = 건설업 2 = 도소매/수리업 3 = 운수, 통신, 금융보험업 4 = 기타
현재경제인식	지난 1년과 비교한 현재의 경제상태 1=매우 나빠졌다 3 = 비슷하다 5 = 매우 좋아졌다
미래경제전망	내년의 경제상태에 대한 인지 1=매우 나빠질 것이다 3 =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5 = 매우 좋아질것이다
가족 및 가구의 특성	
자녀수	함께 거주하는 자녀수(명)
6세이하 자녀여부	1 = 있음 0 = 없음
18세이상 자녀여부	1 = 있음 0 = 없음
소득원수	함께 거주하는 가구내 총소득원수(명)
가족형태	1 = 핵가족 0 = 확대가족
거주지역	1 = 서울특별시 2 = 광역시 3 = 중소도시 4 = 군부지역
가족의 재정적 요인	
주택소유여부	가구의 주택소유여부 1 = 자가 0 = 임대
기업 관련 요인	
직업안정성만족도	1 = 매우 불만족스럽다 3 = 보통이다 5 = 매우 만족스럽다
종업원수	가족기업에 종사하는 친지 + 가족 + 종업원수(자영업자 포함)
주당작업시간	가족기업에 종사하는 주당시간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의 1998년 한국가구패널조사(1998 Korean Household Panel Study)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6,320명을 다단계 표본추출확률방법으로 표집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업 가구를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자료 중 자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표본은 총 713가구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재택 가족기업은 295 가구, 비재택 가족기업은 418 가구였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계재정상태 및 기업재정상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재택 가족기업 가구와 비재택 가족기업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재정상태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 및 x^2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 중 가족기업주의 개인적 특성, 가족기업의 가족 및 가구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재택 가족기업을 보면, 가족기업주의 연령은 35-44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45-54세, 55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재택 가족기업가의 연령은 35세-44세에 이르는 집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음으로는 45-54세, 35세 미만의 순이었다. 한편 가족기업주의 평균연령을 비교해 보면 재택 가족기업가가 45세, 비재택 가족기업가 42세로 나타나 재택 가족기업가의 연령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두 집단에서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재택 가족기업가의 경우 고졸 다음으로 중졸이 많은 비율을 보인 반면, 비재택 가족기업가 중에는 고졸 다음으로 대졸 이상이 많았다. 이러한 교육수준을 평균 교육년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재택 가족기업가의 교육년수가 비재택 가족기업가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별로는 비재택 가족기업은 서울 거주자가 40% 이상, 군부지역 거주자는 약 6.5%에 불과한데 반해, 재택 가족기업은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았지만 중소도시, 광역시, 군부지역도 높은 비율을 보여 비재택 가족기업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Edwards 등(1996)의 조사에서 재택근로자는 비재택근로자에 비해 대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컸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서, 재택 가족기업이 대도시지역에 비해 취업기회가 적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취업대안으로서 더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연령은 재택 가족기업의 경우 집단별로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인 반면, 비재택가족기업에서는 7-18세인 경우가 약 50%였는데, 이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재택근로가 유리한 취업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가족기업주의 현재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은 재택 가족기업주가 비재택 가족기업주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업과 관련된 직업요인을 살펴 보면 〈표 3〉과 같이 가족기업주의 성별은 두 집단에서 모두 남성이 현저하게 많았고, 가족기업주의 직종은 두 집단 모두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재택 가족기업의 경우 숙박/운수/통신/금융업이 비교적 높은 분포인 27%를 보인 반면, 비재택 가족기업의 경우는 다른 직종에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가족기업의 직업안정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표 2> 조사대상 가족기업의 일반적 특성

		재택 가족기업(295)		비재택 가족기업(418)		x^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기업주 연령	35세미만	39	13.22	70	16.75	15.948***
	35-44 세	127	43.05	218	52.15	
	45-54 세	72	24.41	88	21.05	
	55세이상	57	19.32	42	10.05	
가족기업주 교육 수준	중학교	106	35.93	104	24.88	26.391***
	고등학교	154	52.20	202	48.33	
	대학교이상	35	11.86	112	26.79	
가족기업주 거주 지역	서 울	91	30.85	169	40.43	25.111***
	광 역 시	67	22.71	93	22.25	
	중소도시	84	28.47	129	30.86	
	군부지역	53	17.97	27	6.46	
가족형태	핵 가 족	253	85.76	372	89.00	1.670
	확대가족	42	14.24	46	11.00	
자녀연령[a]	6세미만	72	28.57	85	23.42	13.006***
	7-18 세	89	35.32	181	49.86	
	18세이상	91	36.11	97	26.72	
주택소유 여부	유	178	60.34	241	57.66	0.514
	무	117	39.66	177	42.34	
		재택 가족기업(295)		비재택 가족기업(418)		t 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기업주의 연령(세)		45.302	10.028	41.852	8.350	4.999***
가족기업주의 교육수준(년)		10.797	3.054	11.804	3.145	-4.263***
자녀수(명)		1.746	0.918	1.825	0.890	-1.161
가족기업주의 현재경제인식(1-5점)		3.685	0.807	3.474	0.778	3.513***
가족기업주의 미래경제전망(1-5점)		2.932	0.646	2.921	0.707	0.215
소득원수(명)		1.569	0.734	1.467	0.661	1.958

※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a 무자녀표본은 제외되었음

약간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재택 가족기업주가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퇴근 자영업자에 비해 재택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난 곽인숙·이경희(200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종업원수는 재택 가족기업보다 비재택 가족기업이 더 많게 나타남으로써 재택기업의 영세한 규모를 알 수 있다. 또 이들의 주당작업시간은 재택 가족기업의 경우 비재택 가족기업에 비해 5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사업장이 미분리됨으로써 작업시간이 연장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기업의 재택여부에 따른 재정상태 비교

가족기업의 재택여부에 따른 재정상태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간 총소득, 총지출,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월평균 총매출

<표 3> 가족기업의 직업관련요인

		재택 가족기업(295)		비재택 가족기업(418)		x^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기업주 성별	남자	234	79.32	356	85.17	4.140*
	여자	61	20.68	62	14.83	
가족기업주 직업[a]	건설업 등	47	17.41	75	19.89	10.252*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120	44.44	171	45.36	
	숙박/운수/통신/금융업	72	26.67	66	17.51	
	서비스업[b]	31	11.48	65	17.24	
		재택 가족기업(295)		비재택 가족기업(418)		t 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기업주 직업안정성만족도(1~5점)		2.675	0.886	2.818	0.872	-2.144*
종업원수(자영업주포함)(명)		1.783	3.168	2.671	5.445	-2.477*
가족기업주의 주당작업시간(시간)		65.599	27.478	61.041	20.583	2.506*

※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a 무응답자는 제외되었음
b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었음

<표 4> 가족기업의 재정특성

	재택 가족기업(295)		비재택 가족기업(418)		t 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간총소득(만원)	3626.185	3030.414	3669.357	2840.710	-0.194
연간총지출(만원)	1956.860	1077.755	2041.359	1024.714	-1.058
총자산(만원)	8759.103	8346.540	8298.115	6972.378	0.798
총부채(만원)	1308.530	1618.471	1460.319	1766.143	-0.792
순자산(만원)	8176.538	8495.494	7580.213	7011.686	1.021
월평균총매출액(만원)	9222.789	15988.368	12763.271	23762.835	-2.066*
월평균순수입(만원)	2055.891	1287.111	2596.164	1600.104	-4.788***
총지출 대 총소득율	0.990	3.064	0.734	0.582	1.652
총자산 대 총부채율	80.487	385.664	90.028	379.710	-0.222
순수입 대 총매출비율	0.526	0.320	0.441	0.286	3.433***
총매출 대 종업원수비율	5738.244	6878.206	6971.035	10455.958	-1.616

※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액과 월평균 순수입은 비재택 가족기업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비재택 가족기업의 재정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택 가족기업주에 비해 비재택 기족기업주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아 생산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비재택 가족기업이 군부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생산규모가 클 것으로 추측되는 점등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업재정상태를 재무비율로 파악했을 때 순수입 대 총매출액의 비율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재택 가족기업에서 더 높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비재택 가족기업의 월평균 총매출액과 월평균 순수입이 재택 가족기업에 비해 많지만 순수입 대 총매출액율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기업재정상태를 측정함에 있어서 단순측정방법과 비율분석방법을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를 총지출 대 총소득율 및 총자산 대 총부채율로 보고, 가족기업주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 및 가구특성, 그리고 재정특성이 이러한 가계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먼저 재택 가족기업의 경우 〈표 5〉와 같이 가족기업주의 현재 경제인식 및 미래 경제전망, 그리고 거주지역이 총지출 대 총소득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경제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미래의 경제상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할수록 총소득에서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정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과 전망으로 인해 지출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부지역의 재택 가족기업에 비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의 재택

〈표 5〉 가족기업의 총지출 대 총소득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재택 가족기업		비재택 가족기업	
	B	β	B	β
가족기업주의 성별(남자)	0.277	0.037	-0.091	-0.056
가족기업주의 연령(55세이상)				
35세 미만	-0.177	-0.020	-0.259*	-0.166
35 - 44세	0.092	0.015	-0.228*	-0.196
45 - 54세	-0.344	-0.048	-0.178	-0.124
가족기업주의 교육수준	0.005	0.005	-0.018	-0.095
가족기업주의 직업(서비스업)				
건설업 등	-0.019	-0.002	-0.017	-0.011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0.089	0.014	0.071	0.060
숙박/운수/통신/금융업	0.928	0.127	0.027	0.017
가족기업주의 현재경제인식	0.613**	0.162	-0.009	-0.012
가족기업주의 미래경제전망	1.063***	0.225	-0.034	-0.041
자녀수	-0.125	-0.037	-0.078*	-0.118
소득원수	-0.129	-0.031	-0.105*	-0.120
거주지역(군부지역)				
서울특별시	-1.455*	-0.218	-0.578***	-0.487
광역시	-1.493*	-0.204	-0.596***	-0.428
중소도시	-1.366*	-0.201	-0.600***	-0.476
순자산	0.516-6E	0.001	-0.525-5E	-0.064
주택소유여부(자가)	0.241	0.039	0.057	0.048
Intercept	-3.410*		2.174***	
F value	2.150**		3.748***	
R-square	0.1196		0.1392	

* $p < .05$, ** $p < .01$, *** $p < .001$

<표 6> 가족기업의 총자산 대 총부채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재택 가족기업		비재택 가족기업	
	B	β	B	β
가족기업주의 성별(남자)	31.535	0.034	-14.329	-0.014
가족기업주의 연령(55세이상)				
35세 미만	-110.672	-0.097	-19.094	-0.017
35 ~ 44세	40.276	0.050	40.835	0.053
45 ~ 54세	-60.234	-0.071	-48.520	-0.052
가족기업주의 교육수준	17.395	0.148	8.635	0.069
가족기업주의 직업(서비스업)				
건설업 등	-148.572	-0.131	280.642***	0.269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158.886	-0.203	-25.347	-0.033
숙박/운수/통신/금융업	-145.102	-0.154	23.031	0.023
가족기업주의 현재경제인식	0.971	0.002	-14.599	-0.033
가족기업주의 미래경제전망	124.707*	0.210	-78.041*	-0.152
자녀수	-24.867	-0.052	64.237	0.128
소득원수	-6.199	-0.013	-33.586	-0.057
거주지역(군부지역)				
서울특별시	107.499	0.123	94.892	0.121
광역시	-31.196	-0.035	18.837	0.022
중소도시	11.400	0.013	38.468	0.047
총지출	0.036	0.102	-0.035	-0.098
주택소유여부(자가)	5.145	0.006	38.564	0.050
Intercept	-410.207		155.136	
F value	1.221**		1.798*	
R-square	0.1588		0.1405	

* $p < .05$, ** $p < .01$, *** $p < .001$

가족기업은 총지출 대 총소득율이 낮았는데, 이는 도시지역의 지출수준이 군부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비재택 가족기업의 총지출 대 총소득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자녀수, 소득원수, 거주지역이었다. 비재택 가족기업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집단에 비해 35세 미만이거나 35-44세인 경우 총지출 대 총소득의 비율이 낮았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55세 이상인 집단이 가족생활주기상 자녀교육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 가계지출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55세 이상의 집단에서 총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녀수는 총지출 대 총소득율에 부적 영향을 미쳐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재택 가족기업의 총지출 대 총소득율이 낮았고, 소득원수도 부적 영향을 미쳐 소득원수가 많을수록 총지출 대 총소득율이 낮았다. 이는 가족기업주 외에 배우자나 자녀의 취업으로 나타나는 소득원수의 증가가 자녀수의 증가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소득원수 증가에 따른 총소득의 증가가 총지출 대 총소득율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지역 별로는 군부지역의 비재택 가족기업에 비해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

재택 가족기업의 총지출 대 총소득율이 낮았는데, 이는 재택 가족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의 지출수준이 군부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를 총자산 대 총부채율로 보고, 가족기업주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 및 가구특성, 재정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재택 가족기업의 총자산 대 총부채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가족기업주의 미래 경제전망 뿐이었으며, 미래 경제상태를 낙관적으로 전망할수록 총자산 대 총부채율이 높았다. 또 비재택 가족기업의 경우 서비스업보다 건설업에 종사할 경우 총자산 대 총부채의 비율이 높았고, 미래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할수록 총자산 대 총부채율이 낮았다. 이는 미래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재정적 불확실성이 낮아 자산을 축적하는 경향이 적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를 증가시켜도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가족기업의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기업의 기업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순수입 대 총매출액율 및 총매출액 대 종업원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먼저 재택 가족기업의 경우 〈표 7〉과 같이 가족기업주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직종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가족형태, 그리고 주당작업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기업주가 남성일 때 순수입 대 총매출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Kraut, 1989; Rowe et al., 1992; Edward et al., 1996)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가족기업 직종의 차이와 이와 관련지어 나타나는 매출액, 순수입 및 구조적인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가족기업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집단에 비해 35-44세인 집단의 순수입 대 총매출액의 비율이 높았고, 45-54세 집단의 순수입 대 총매출액의 비율은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순수입 대 총매출액 비율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순수입 대 총매출액의 매출력 차이는 직종과 관련시켜 기업성과의 차원에서 분석해야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재택 가족기업주가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인 경우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순수입 대 총매출액의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기업주의 직종이 서비스업인 경우보다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인 경우 순수입 대 총매출의 비율이 낮았다. 즉, 재택 가족기업 중에서도 직종에 따라 매출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가족형태가 핵가족일 때 확대가족에 비해 순수입 대 총매출의 비율이 높았는데, 확대가족은 핵가족에 비해 가족수가 많고 가족구성이 복합적이므로 가족원의 요구수준이 높고, 따라서 가족기업주가 가족부양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기업에 전념하지 못함으로써 매출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관련 요인 중에는 재택 가족기업주의 주당 작업시간이 길수록 순수입 대 총매출액율이 낮았는데, 이는 재택가족기업의 주당작업시간이 비재택 가족기업보다 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택가족기업의 매출력 극대화를 위해 적절한 작업시간의 분기점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비재택 가족기업의 순수입 대 총매출액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기업주의 성별과 교육수준, 직업 등의 개인적 요인과 가족기업의 종업원수였다. 비재택 가족기업주의 성별이 남성일 때 순수입 대 총매출액의 비율은 높았는데, 이는 재택여부와 관계없이 여성 가족기업주에 비해 남성 가족기업주의 순수입 대 총매출액의 비율이 높았던 김순미 · 홍성희(2000)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로서 남성 가족기업가의 기업성과가 보편적으로 더 높은 경향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또 비재택 가족기업가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집단에 비해 중고졸 이상일 때, 그리고 대졸 이상일 때 순수입 대 총매출액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성과의 감소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재택 가족기업가의 직종이 서비스업인 경우에 비해 건설업이거나, 도소매 · 소비자

〈표 7〉 가족기업의 순수입 대 총매출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재택 가족기업		비재택 가족기업	
	B	β	B	β
가족기업주의 성별(남자)	0.253***	0.214	0.160*	0.117
가족기업주의 연령(55세이상)				
35세 미만	0.041	0.040	0.009	0.012
35 - 44세	0.009*	0.015	-0.015	-0.026
45 - 54세	-0.015*	-0.021	-0.055	-0.079
가족기업주의 교육수준(중학교이하)				
중고등학교 졸업	-0.076	-0.120	-0.108**	-0.190
대학교 이상	-0.189**	-0.204	-0.162***	-0.250
가족기업주의 직업(서비스업)				
건설업 등	-0.119	-0.146	-0.107*	-0.149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0.204***	-0.310	-0.164***	-0.283
숙박/운수/통신/금융업	0.065	0.091	0.112	0.015
가족기업주의 현재경제인식	-0.022	-0.057	0.030	0.082
가족기업주의 미래경제전망	0.001	0.003	-0.020	-0.049
가족형태(핵가족)	0.147*	0.160	-0.004	-0.004
거주지역(군부지역)				
서울특별시	0.019	0.028	0.019	0.033
광역시	-0.102	-0.136	0.014	0.021
중소도시	-0.034	-0.049	0.018	0.028
순자산	0.197-5E	0.053	0.323-5E	0.078
주택소유여부(자가)	0.001	0.002	-0.050	-0.088
6세이하 자녀여부	0.036	0.053	0.022	0.037
18세이상 자녀여부	-0.042	-0.060	0.005	0.007
가족기업주의 직업안정성만족도	-0.008	-0.022	0.002	0.005
종업원수	-0.006		-0.012***	-0.236
주당작업시간	-0.002*	-0.072	-0.580-E	-0.040
Intercept	0.527*	-0.133	0.482**	
F value	3.929***		4.004***	
R-square	0.2936		0.2107	

* p < .05, ** p < .01, *** p < .001

용품 수리업일 때 순수입 대 총매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직종에 따라 매출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교육수준과 매출력이 부적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정적관계를 나타내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교육수준과 직종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교육수준, 직종 및 매출력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종업원수가 많을수록 순수입 대 총매출액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업원수가 많을수록 기업규모가 증가하는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기타 고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순매출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총매출 대 종업원수 비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

〈표 8〉 가족기업의 총매출 대 종업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재택 가족기업		비재택 가족기업	
	B	β	B	β
가족기업주의 성별(남자)	-1693.923	-0.065	-4575.389	0.098
가족기업주의 연령(55세이상)				
35세 미만	-423.739	-0.019	700.470	0.025
35 - 44세	2428.699	0.173	2881.053	0.137
45 - 54세	2376.016	0.149	4098.092	0.159
가족기업주의 교육수준(중학교이하)				
중고등학교 졸업	969.128	0.069	3137.551*	0.149
대학교 이상	5044.576**	0.246	4011.519*	0.168
가족기업주의 직업(서비스업)				
건설업 등	2123.027**	0.117	2570.168	0.096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3375.609*	0.233	3261.943*	0.152
숙박/운수/통신/금융업	-381.492	-0.024	159.380	0.005
가족기업주의 현재경제인식	620.375	0.072	-1360.831	-0.099
가족기업주의 미래경제전망	364.702	0.034	1247.799	0.084
가족형태(핵가족)	-2542.488	-0.126	-1977.954	-0.057
거주지역(군부지역)				
서울특별시	2062.022	0.138	-1212.985	-0.057
광역시	3488.489*	0.213	-3272.698	-0.129
중소도시	2207.244	0.143	-719.127	-0.031
순자산	-0.032	-0.039	0.379-3E	-0.247-3E
주택소유여부(자가)	110.815	0.008	2087.840	0.098
6세이하 자녀여부	-1151.062	-0.078	-120.771	-0.005
18세이상 자녀여부	183.639	0.012	-96.988	-0.004
가족기업주의 직업안정성만족도	145.077	0.018	66.313	0.005
주당작업시간	19.606	0.075	6.716	0.013
Intercept	-1383.812		6973.260	
F value	2.310**		1.704*	
R-square	0.1876		0.0963	

* p < .05, ** p < .01, *** p < .001

과는 〈표 8〉과 같다.

재택 가족기업의 경우 가족기업주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대졸 이상일 때 총매출 대 종업원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교육수준이 높은 가족기업주가 경영하는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택 가족기업의 직종이 서비스업인 경우보다 건설업이거나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일 때 총매출 대 종업원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김순미 등(2000)의 연구결과에서 재택유무와 관계없이 가족기업의 총매출 대 종업원수 비율이 도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인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컸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서, 전반적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등의 생산성이 높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거주지역 별로는 군부

지역에 있는 재택 가족기업에 비해 광역시에 있는 가족기업의 경우 총매출 대 종업원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군부지역의 재택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비재택 가족기업의 총매출 대 종업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기업주의 교육수준과 직종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기업주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중고졸이거나 대졸 이상인 경우 총매출 대 종업원수 비율이 높아 재택가족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직종이 서비스업인 경우에 비해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일 때 가족기업의 총매출 대 종업원수 비율이 높아 도소매/소비자용품업의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재택여부에 따른 가족기업의 재정상태의 차이를 파악하고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액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기초한 총지출 대 총소득율, 총자산 대 총부채율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두 집단의 가계재정상태, 재정적 안정도 및 자립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는 비재택 가족기업의 기업규모가 재택 가족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가계재정상태가 좋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로서, 대부분의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가 재택여부와 관계없이 영세한 수준이거나 또는 가계재정상태가 기업재정상태와의 종속성정도에 따라 가계재정상태의 차이가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본 연구의 가계재정상태 측정기준과 방법에서 생긴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를 심층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정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택 가족기업의 매출액과 순수입은 비재택 가족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재택기업의 순수입 대 총매출 비율은 비재택 가족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처럼 재택 가족기업의 매출력이 비재택 가족기업에 비해 상대적 높은 것은, 개인 및 가족, 가구 특성이 일정한 상황에서 가족기업이 재택여부를 결정할 때 재택 가족기업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직종분포에서 기인하는 기업재정상태의 차이로 파악할 수도 있으므로, 직종에 따른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매출력과 생산성을 고려한 단계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택 가족기업의 총지출 대 총소득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가족기업주의 현재경제인식, 미래경제전망과 거주지역이었으며, 비재택 가족기업의 총지출 대 총소득율은 가족기업주의 연령, 자녀수 및 소득원수, 거주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재택 가족기업주의 각 연령집단은 가계의 재정적 안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비재택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향상되었는데 이는 비재택 가족기업이 재택 가족기업에 비해 경영능력과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영능력과 자본이 부족한 가구는 모든 연령층에서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재택 가족기업이 가계재정상태에 더 유리한 취업대안이라는 점을 제안할 수 있다.

또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총자산 대 총부채율은 가족기업주의 미래경제전망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비재택 가족기업은 가족기업의 직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업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재택 가족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규모와 관련하여 가계의 재정적 자립도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비재택 가족기업의 직종에 따라 재정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택 가족기업의 순수입 대 총매출액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기업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중심이 되었으며, 가족형태의 가족관련 요인과 주당작업시간의 직업관련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비재택 가족기업의 순수입 대 총매출액 비율은 가족기업주의 성별, 교육수준 및 직업의 개인적 특성과 종업원수의 직업관련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 가족기업뿐 아니라 비재택 가족기업에서도 남성기업주 일 때 순수입 대 총매출액 비율이 크게 나타난 결과는, 공간과 시간의 융통성으로 인해 기혼여성이 유리한 취업형태인 재택근무를 선택한 것이기 보다는 여성들이 운영하는 가족기업이 근본적으로 재택여부와 무관하게 매출력이 낮으며 영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가족기업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재택 가족기업의 매출력에 미치는 영향보다 재택 가족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으나, 교육수준은 재택 가족기업의 매출력보다 비재택 가족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가족기업주가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직업을 고려하여 재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재택 가족기업의 순수입 대 총매출액 비율과 주당작업시간의 부적 관계는 재택 가족기업의 주당작업시간이 비재택 가족기업이나 다른 직종에 비해 길기 때문에 매출력 극대화를 도달할 수 있는 작업시간의 설정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비재택 가족기업의 순수입 대 총매출액 비율과 종업원수 간의 부적 관계는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재택 가족기업의 총매출액 대 종업원수 비율은 가족기업주의 교육수준, 직업과 거주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비재택 가족기업의 총매출액 대 종업원 비율은 가족기업주의 교육수준, 직업과 거주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재택 가족기업의 경우, 군부지역에 있는 가족기업에 비해 광역시에 있는 가족기업의 총매출액 대 종업원수 비율이 높은 것은 군부지역이 갖고 있는 제한된 지역성과 영세성, 그리고 낮은 매출액 등에서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생산성 및 기업장래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택 가족기업주와 비재택 가족기업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노동생산성 및 기업장래성의 결과를 통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재택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족기업은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곽인숙 · 이경희(2000), 소규모 가족기업 소유자의 사업장 위치와 근무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7), 27-37.
2) 김순미 · 홍성희(2000),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7), 13-26.
3) 김지희(1998), 가족기업가정에 관한 연구-이론 및 실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4) 문숙재 · 김지희 · Heck, R. K. Z.(1998), 재택근무 가정의 실태 및 개념적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3), 207-224.
5) 박명희 · 박미혜(1997), 재택근무의 고찰과 가정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13.
6) 박미혜 · 박명희(1999), 기혼여성재택근무자의 관리행동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1-16.
7) 이경희 · 김순미 · 김혜연 · 김성희(2000) 기혼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력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143-161.
8) Ahrentzen, S. B.(1990), Managing conflict by managing boundaries: How professional homeworkers cope with multiple roles at home, Environment Behavior, 22 723-752.
9) Bregger, J. E. (1996), Measuring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January/February, 3-9.
10) Christensen, K. E.(1988),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Directions and Policies, Boulder, CO: Westview.

11) Coates, V. T.(1988), Office Automation Technology and Home-based Work, in Christensen, K. E.(1988),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Directions and policies, Boulder, CO: Westview.

12) Kraut, R. E.(1989), Telecommuting: The tradeoffs of home and work, Journal of Communication, 39(3), 19-47.

13) Edwards, L. N., & E. Field-Hendrey(1996), Home-based workers: data from the 1990 Census of Population, Monthly Labor Review, November, 26-34.

14) Heck, R. K. Z.(1988), A Pfofile of Homebased Workers, Human Ecology Forum, 16(4), 15-18.

15) Heck, R. K. Z.(1992), At-Home Income Generation, JFEI, 13(3), 241-244.

16) Heck, R. K. Z., Stafford, K., Winter, M., Hennon, C. B.(1993), Home-Based Business and Family Outcomes,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 352-356.

17) Pleck, J. H.(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 417-427.

18) Pratt, J. H.(1987), Methodological problems in surveying the home based workforc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s, 31, 49-60.

19) Rowe, B. R., Heck, R. K. Z., Haynes, G. W., & Bentley, M. T.(1993), Family -Owned Home Businesses and their Economic Outcomes,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 362-365.

20) Rowe, B. R., Haynes, G. W., & Bentley, M. T.(1993), Economic Outcomes in Family-Owned Home-Based Business, Family Business Review, 6(4), 383-396.

21) Walker, R., Furry, M. & Masuo, D.,(1993), The Gender Factor in Hours Worked and Net Income of Home-Based Business Owners,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 366-370.

22) Winter, M., & M. Fitzgerald(1993), Continuing the Family-Owned Home-Based Business: Evidence from a Panel Study, Family Business Review, 6(4), 417-426.